

KB금융그룹 튀르키예 구호 성금 6억 기탁

KB금융그룹(윤종규 회장·사진)이 튀르키예 긴급구호 및 지진 복구를 위한 이벤트에 참여한 1만 3377명의 마음을 담아 3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렇게 모금된 국민들의 성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 적립해 총 6억원을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전액 현지 구호 및 피해복구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DGB대구은행, 무료급식 행사… 800명 식사 제공

DGB대구은행은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무료 급식 행사를 진행하고 무료 급식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DGB대구은행 임직원 및 DGB대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20여명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해 약 800여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DGB대구은행



에어부산, 지역사회 혈액난 극복 팔 걷어

에어부산은 지난 7일 부산시 강서구 에어부산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헌혈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회사 설립 초부터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헌혈 봉사활동에 참가한 에어부산 직원이 헌혈을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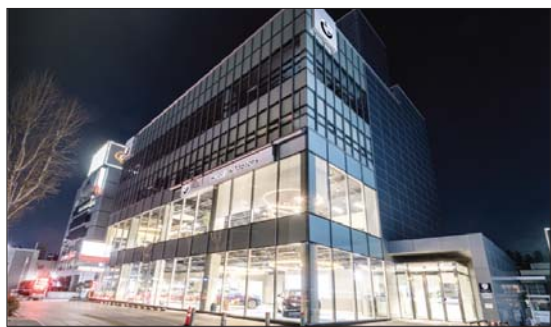
/에어부산



벤틀리, 플래그십 전시장 ‘벤틀리 큐브’ 선보

벤틀리는 8일 서울 청담동에 ‘벤틀리 큐브’ 오픈 행사를 열었다. 벤틀리 큐브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컨템포러리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브랜드 콘셉트 디자인을 적용한 플래그십 전시장이다. 새로운 ‘임베디드 다이아몬드’ 디자인과 나뭇결을 살린 수직적 패턴 우드베니어 등을 볼 수 있다.

/벤틀리



한독모터스, BMW 서대구 전시장 오픈

BMW 공식딜러사 한독모터스는 BMW 서대구 전시장 및 패스트레인 서비스센터와 BMW 서대구 중앙 서비스센터를 새로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BMW 서대구 전시장은 대구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BMW 최신 CI도 적용했다.

/한독모터스

가해자는 뒷짐… 굴욕적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안



홍경한 역

시시일각

미술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초현실주의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에 비하면 대개는 그저 비루한 생존법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역사에 죄를 짓는 참사가 ‘결단’으로 둔갑하는 현실에 비하면 거론될 감조차 안 된다. 근래만 해도 그렇다. 이게 과연 나라인지, 어느 나라 행정부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재원은 포스코, 한국도

로공사, 케이티(KT)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16개 한국 기업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정작 배상을 해야 할 일본 전범 기업은 빠졌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일본 쪽 주장과 판박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은 없었다며 졸권 부정해왔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한 기부금 조성 및 일제강제동원피해 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으로 요약되는 해당 방안에 대해 박진 외교부장관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궤변을 내놔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가 사할을 걸 만큼 시급한 것일까. 난 아니라고 보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 인정과 정당한 배상, 사죄가 우선이다. 중국을 견제해야 할 미국에겐 아시아 동맹인 한·일 관계 개선이 다급할지 몰라도 일본이 먼저 침략 침탈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건설적 관계는 이뤄지기 어렵다. 우리가 아닌 일본이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은 물론 강제동원 문제까지 부정한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위안부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를 재촉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일본 쪽의 ‘성의 있는 조치’를 얻어내야 한다는 태도였다. 그런데 돌연 한·

미·일 협력 강화를 배경으로 한 윤 대통령의 조급함으로 인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조치’는 끝내 무산됐다.

제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일제 치하 35년간 이어진 고통의 역사를 아무 일 없듯 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국민 동의부터 구했어야 옳다.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자기 마음대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

가해자는 뒷짐 지고 피해자가 먼저 해법을 고민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본 식민지배를 받은 것이 우리가 못나서였다는 식의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이라는 점에서 머잖아 조공까지 바치겠다는 말도 하지 싶다.

/미술평론가

롯데,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확대

부산시-박람회유치위 MOU

엘시티 타워 등 인프라 제공

롯데가 8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부산광역시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이성권 부산시경제부시장, 이갑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이 참석했다.

롯데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 실사 준비 지원을 위해 보유 인프라를 활용할 예정이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부산과 서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제공하는 대표 인프라는 해운대 랜드마크 ‘엘시티(LCT)’타워의 260실 규모 럭셔리 호텔 시그니엘 부산으로, 방한 할 현지실사단의 숙소로 제공된다.시그니엘 부산은 해운대와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포항, 달맞이 고개, 동백섬 등 부산의 다양한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도 우수하다.

부산지역 700여 곳 롯데 계열사 사업장에도 ‘BUSAN IS READY!’라고 적힌 현수막과 부산엑스포 엠블럼을 함께 건다. 부산 근무 롯데 직원 1만 여명도 엑스포 유치 염원



롯데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부산시와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갑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이성권 부산시경제부시장.

/롯데지주

을 담아 부산 엑스포 배지를 착용하고 근무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과 롯데윌드는 현지 실사단 방한 일정에 맞춰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서울 광화문 부산 엑스포 유치 행사(가칭)’도 참여한다.

각 사의 대표 캐릭터 벨리곰과 로티, 로리의 대형 조형물 포토존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지 실사단이 광화문에 방문하는 4월 3일에는 각 캐릭터들의 시인 포토타임과 롯데윌드의 ‘여성 밴드’ 공연도 펼친다.

한편, 롯데는 전사 차원의 ‘롯데그룹 유치지원 TFT’를 조직하고 그룹 역량을 결집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 ‘고액 납세의 탑’ 수상

박찬구 “성실납세 통해 사회환원 기여”

〈금호석화그룹 회장〉

그룹 내 두 계열사 동시선정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이 성실 납세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 받았다.

8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난 3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원 이상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금호석유화학이 ‘3000억원 납세의 탑’, 금호피앤비화학이 ‘2000억원 납세의 탑’에 각각 이름을 올렸으며 백종훈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와 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왼쪽부터)신우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와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가 고액납세의 탑 선정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각 회사를 대표해 탑을 수여 받았다.

그룹 내 두 계열사의 동시 선정에 대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본업에 충실히 임해 성과를 창출하고, 성실 납세를 통해 사회 환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효성티앤씨 ‘리젠 되돌림’ 캠페인 시즌2 개시

페트병 1만 5000개 수거 목표

효성티앤씨가 임직원들과 ‘리젠’ 원료인 페트병을 모았다.

효성티앤씨는 8일 ‘리젠 되돌림’ 캠페인 시즌2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사내에서 임직원이 페트병을 모으면 리젠을 적용한 가방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로 진행된다.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본사 사업장에서 처음 캠페인을 시작해 약 9000개 페트병을 모은 바 있다.올해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1만5000개 수거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소나무 약 70그루가 1년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효성티앤씨는 리젠으로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동반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전사 임직원이 힘을 모아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해 친환경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